

오늘 오전에는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.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WSJ: 미 경제 둔화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
- Bloomberg: 애틀랜타 중앙은행총재, 금리 인하 시기 시간 걸려
- WSJ: 연방정부, 국방비 보다 부채 이자에 더 지출
- Bloomberg: 미 소비자 심리, 3개월 연속 향상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, “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예의주시”

[에너지]

- CNN Business: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른다

[기후]

- CNBC: 미국인 83%, “주택 구매 시 기후 위험 고려한다”

[전기차]

- WSJ: 중국 전기차 BYD, 멕시코 통해 미국 진출 시도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향후 5년 후, 소매업계 어떻게 변할 것인가
- CNN Business: 타겟, 새로운 저렴한 브랜드 공략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America’s Economy Slowed—It Probably Won’t Stumble

미 경제 둔화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

- 1월 소매 판매가 12월 비교 0.8% 떨어졌다고 어제 목요일 연방상무부는 밝혔다. 같은날 연준 발표에 따르면 당초 상승 예상에도 불구하고 1월에 0.1% 줄었다.
- 그러나 소매 매출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외식업과 주점 지출은 12월 보다 0.7% 증가했다.
- 특히 2월 연준의 뉴욕주와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설문조사에서 예상보다 강했으며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보다 낮았다.

WSJ 기사

Bloomberg: Fed's Bostic Says May Take 'Some Time' to Hit Rate-Cut Threshold

애틀랜타 중앙은행총재, 금리 인하 시기 시간 걸려

- Raphael Bostic 애틀랜타 연방준안은행 총재는 노동시장과 경제가 강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, 인플레이가 연준의 목표치 2%로 계속 낮아진다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.
- 그는 목요일 뉴욕의 한 연설에서 데이터, 설문 조사, 각종 아웃리치에서 나온 증거들은 아직 인플레이가 잡혔다고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The U.S. Government Will Soon Spend More on Interest Payments Than Defense

연방정부, 국방비보다 부채 이자에 더 지출

- 국채수익률이 지난 수년래 최고치로 오르면서 정부는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예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.
- 의회 예산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이자 1조1천억 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올해 예산에서 이자가 국방비 지출을 능가하고,가장 큰 지출은 사회보장제도 와 메디케어 부문이다.

WSJ 기사

Bloomberg: US Consumer Sentiment Increases for a Third Straight Month

미 소비자 심리지수, 3개월 연속 향상

- 미국인들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, 2월 미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째 상승했다.
- 미시간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, 심리지수가 0.6포인트 상승해 79.6을 기록했으며, 이는 2021년 7월 이래로 가장 높다.
-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, 이런 생각은 고용시장 상황과 결부되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설문조사를 맡은 Joanne Hsu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Fed's Barr Says Regulators Are Eyeing Commercial Real Estate Risk**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, “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예의주시”**

- 미 규제 당국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, 대출 기관들에 대한 감독 등급(supervisory ratings)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연준의 수석 감독관이 밝혔다.
- Michael Barr 연준 부의장은 기업들에 자금 압박을 일으킬 수 있는 소수 은행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.
- 그는 변화하는 경제, 금리 그리고 금융환경이 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.
- 규제 당국은 1년 전 지역의 대형 은행 3곳이 파산 후 금융 감독을 개선하는 한편, 새로운 국제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에너지]

CNN Business: Don't look now but gas prices are rising fast**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른다**

- 이같은 현상은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. 전국 갤런당 평균 가격이 지난 한 주만 해도 13센트 늘어난 3달러 28센트.
- 이는 이번 공휴일에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지난 3개월에 가장 비싼 휘발유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.
- 물론 겨울이 끝나가면 수요가 증가하지만 최근 중서부 등 정유공장들이 수주간 가동 중단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것도 비용상승에 한몫하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[기후]

CNBC: People are moving out of cities with poor air quality — but many end up facing other climate risks**미국인 83%, “주택 구매 시 기후 위험 고려한다”**

- 부동산 기업인 Redfin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, 2021년과 2022년 사이 대기 질이 좋지 않은 도시로 이사를 온 사람들보다 이사를 나간 사람이 1백20만 명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.
- 또한 부동산 사이트 Zillow Group 지난 9월에 주택 구매 예정자의 83%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기후 위험을 고려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.

- Redfin의 수석 경제학자인 Daryl Fairweather는 사람들이 기후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, 이는 어느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.
- 한편, First Street 재단의 기후 연구 책임자인 Jeremy Porter는 기후가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 위험 지역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.

CNBC 기사

[전기차]

WSJ: Chinese EV Maker BYD Exploring Mexico Factory as Entry to U.S. Market

중국 전기차 BYD, 멕시코 통해 미국 진출 시도

- 이 회사는 멕시코에 공장을 신축할 위치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글로벌 진출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눈을 돌리고 있다.
- 이 기업은 이같은 전략은 중국에서 전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 막대한 관세를 부과 받게되어 이를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.
- 경쟁 자동차 회사들의 책임자들은 이같은 중국 기업들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BC: What will retail look like in five years? Top industry executives share their predictions

향후 5년 후, 소매업계 어떻게 변할 것인가

- CNBC가 소매업계 관계자들에게 향후 5년 후 소매 업계가 어떻게 변할지 전망을 물어봤다.

5년 후 매장의 역할은 무엇이며, 오프라인 매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,

- Abercrombie & Fitch의 CEO인 Fran Horowitz는 오프라인 매장의 미래는 작고 효율적인 옴니 스토어이며, 고객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고객 경험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.
- Levi Strauss의 CEO인 Michelle Gass는 오프라인 매장은 훨씬 더 고객 경험을 내세워야하며 클릭 한 번으로 쇼핑하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, 매장이 가진 기능을 확보하고,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.

5년 후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소매 업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란 질문에,

- 월마트의 전 임원인 Lore는 AI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, 대화형 커머스가 업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, 기존의 검색엔진은 구형이 될 것이라 말했다.
- Neiman의 van Raemdonck는 앞으로는 3D로 제품을 보여줘 소비자에게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며, 또한 기업이 소비자를 더 잘 파악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예측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.

5년 후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중 어디에서 대부분 쇼핑할 것이란 질문에,

- Kroger의 Cosset은 디지털 판매의 상당 부분이 매장에서 이행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매장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말했다.
- Figs의 Spear는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으며,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가질 수 있을수록 더 매출 효과가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, 젊은 세대의 오프라인 매장 이용률이 올라간 것을 언급했다.

CNBC 기사

CNN Business: Target creates its cheapest in-store brand as consumers are squeezed

타겟, 새로운 저렴한 브랜드 공략

- 타겟은 인플레이가 미국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이와 관련 최근 몇분기 동안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.
- 이에 따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달러 미만부터 시작하는 일상 기본 제품에 싼 새로운 브랜드 Dealworthy를 출시하고 있다.
- 전국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충전기, 1회용 접시, 속옷 등 4백개 품목을 출시, 달러 스토어 등 경쟁업체를 겨냥하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"금리인하 아예 안해도 올해 미 증시 좋을 것"... 낙관론 근거는?"

BoA 전망, 인플레이 이미 정점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

최근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금리인하가 늦어져도 별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비즈가 15일(이하 현지시간) 보도했다.

심지어뱅크오브아메리카(BoA)의 경우 올해 금리가 아예 안 내려가도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으로 전망했다.

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5월이 아닌 6월 또는 7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(FOMC)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